

'AI·B2B·고효율' 키워드 부각... 스마트홈 대중화 시대 제시

IFA 2024 폐막

전시회 현장 18만명 이상 방문
삼성·LG 등 주요기업 AI 가전 선보여
중, 최대규모 전시... TV분야 공세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가 닷새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참가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데이터 에너지 효율까지 높인 가전을 대거 선보이며 '스마트 홈' 대중화 시대를 알렸다. 올해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기업들도 AI 가전을 연이어 공개하며 가전 시장의 격화된 경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활용한 기업간거래(B2B) 솔루션 사업도 공개하며 고객 확대에 속도를 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이번 IFA 전시회는 '모두를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all)을 주제로 전 세계 139개국 22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총 18만2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은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AI와 B2B가 핵심 키워드로 부각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통한 혁신'을 내세우며 한층 수준 높아진 제품을 선보였다.

◆기능에서 경험 중심 AI 공개 '맞춤형 스마트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동안 기능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체험존.



LG전자의 '씽큐 온'을 통해 사용자들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모습. /뉴스시

만 강조했던 AI와 달리 경험 중심으로 발전된 기술을 선보였다. 공간별 제어는 물론 고객 맞춤형 스마트홈을 구현한 것. 스마트 홈 앱을 통해 여러 가전들의 설치 상황, 연결 상태 등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맵뷰를 공개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냉장고와 TV 등 AI 가전과 파트너 제품을 연결한 AI 홈 허브인 '스마트싱스'를 선보였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으로 2014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후 현재 약 3억5000만명이 가입한 거대 연결 플랫폼이다. 특히 한층 진화한 AI 음성비서 '빅스비'를 자사 비스포크 AI 가전에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에어컨 26도로 맞춰주고 오후 5시까지 세탁 끝내줘"처럼 한 번에 여러가지 지시를

해도 가전제품이 각의도를 알아듣고 수행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다.

한중희 부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IFA 2024' 기자간담회에서 "AI가 연결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초개인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모바일, TV, 생활가전 등 전 제품에 연결 경험을 아우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올해 전시 주제는 '공감지능으로 새롭게 그려내는 AI홈'이다. LG전자는 가전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탑재한 AI 허브 'LG 씽큐 온'을 공개하고 씽큐 온을 중심으로 한 AI 홈을 전시했다. AI가 대화의 맥락과 환경을 파악하고, 허브를 통해 연결된 AI 가전이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세심한 관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알렸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택시 호출을 해줄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에는 캘린더 일정을 음성 브리핑도 해준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싱스'와 '씽큐 온'을 사용하는 해당 국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제품은 물론 LG전자 제품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양사는 B2B 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AI를 활용한 B2B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프로'를 통해 사업자의 운영 관리를 돕는다. LG전자는 호텔과 아파트 등에서의 관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신기술 대거 공개...중은 TV 기술력 자랑

올해 IFA는 가전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중국은 전시 참가국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시장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인 TCL은 이동형 AI 홈 허브 로봇 '할리'를 공개했다. 하이얼도 가전기기를 원격 제어하고 연결할 수 있는 AI 기술 기반의 앱 H온을 소개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TV 분야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TCL은 '퀀텀닷(QD) 미니 발광다이오드(LED) TV'를 전면에 내세웠다.

독일 대표 가전 기업 밀레는 리브 없는 세탁기를 선보였다. 세탁기 통돌이에 탑재된 리브는 세제와 세탁물을 섞기 하는 필수 기능이지만 돌출되어 있어 옷감을 상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밀레는 AI를 통해 드럼통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리브를 제거했다.

고효율 가전도 이번 전시회의 핵심 키워드였다.

LG전자는 A 등급보다 약 55% 뛰어난 효율을 갖춘 드럼 세탁기는 물론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하는 '코어테크(핵심 기술력) 2.0'도 선보였다.

밀레는 신제품인 W2 노바 에디션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이 A 등급보다 20% 더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랜드포스 20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통합 부스 전경

/한화

한화, '랜드포스' 출격... "방산·우주 협력 강화"

(호주방산 전시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참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천무 등 소개

한화가 호주에 '종합 방산 솔루션'을 제시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11일부터 1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랜드포스 2024'에 참가해 약 20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한화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과 5G를 기반으로 한 초 연결 'C4I' 전술통신솔루션 등의 기술을 선보였다. 회사는 ▲ 전술5G통신체계 ▲저궤도 위성 ▲MOSS 플랫폼 등 다양한 장비로 구성된 C4I솔루션으로 미래형 전술통신체계 역량을 알릴 방침이다. C4I는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

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를 말한다.

또 멜버른 전시장과 약 70km 떨어진 질롱시 레드백 생산공장에서 드론-차량-전시 현장 간 '실시간 영상 전송'을 시연한다. 달리는 차량에 이동형 5G 기지국을 탑재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신하고, 해당 영상을 다시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해 전시장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이는 전쟁 시 지상 통신망 단절과 관계없이 원활한 작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전시한다.

또 자체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 실물을 전시한다.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지상은 물론 수상에서도 기동이 가능해 운용 목적에 따라 최적

화가 가능하다.

다연장로켓 '천무' 실물도 전시된다. 유도 미사일 3종과 함께 전시되는 천무는 다수의 유도 미사일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AI 기반 원격 및 자율주행이 가능해 위험지역에 대한 수색·정찰·경계·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색차량'과 탄두를 밀어내는 장약을 원통형으로 모듈화해 목표 사거리에 따라 적정량의 화약을 장전할 수 있는 모듈화 장약(MCS) 역시 소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K9, 레드백 수출로 쌓은 신뢰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양국 간 방산·우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박대성 기자 ysw@

국내 최초

SK에너지, SAF 전용 생산라인 구축

코프로세싱 방식... 내달 상업 생산

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유(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나선다.

특히 SK에너지는 SAF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용 라인을 갖춘 데다 안정적으로 바이오 원료를 제공할 공급업체까지 확보함에 따라 향후 급속하게 커질 SAF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에너지는 국내 처음으로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달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투

입해 SAF를 비롯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SK에너지가 이번에 갖춘 코프로세싱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석유 원료와 함께 바이오 원료를 동시에 넣어 석유제품과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원료 저장 탱크에 5km 길이의 전용 배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바이오 원료를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속적인 SAF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SAF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SK에너지는 SAF 사업 확대를 위한 원료 수급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AI 등 기술·개발 노하우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

LG전자가 9일부터 이틀간 미국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기술 교류와 소통을 위한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2024'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주제로 ▲AI·빅데이터 ▲모빌리티·자동차 ▲플랫폼·아키텍처 등 8개 분야 기술 발표를 진행했다.

LG전자를 포함한 LG 계열사 소프트웨어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퀄컴,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발자 등 2500여 명이 기술 및 개발 노하우를 공유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임원들은 사업영역에서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릴레이 기조연설을 맡아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튜브 영상 제공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